

야구 국가대표 전임감독제 어디로?

전임제 유지하자니 정총재 소신과 배치
폐지하자니 '야구계 숙원 과제' 물거품
문제 꼬이게 한 KBO 수뇌부 행보 우려

KBO 정운찬 총재는 선동열 국가대표 감독이 사임의사를 밝히기 20여일 전인 10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임감독제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동열 대표팀 전임 감독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문제적 발언이었다. 질의를 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수차례 국가대표 전임감독제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에 대해 “그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이 모두 선동열 감독에게는 크게 모욕적이었다.

결국 선 감독은 14일 스스로 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났다. 장운호 사무총장은 “정운찬 총재가 복도까지 나와 선 감독의 사임을 만류했다”고 전했지만, 이미 뜻이 기운 선 감독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정 총재의 국감 발언은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나온 실수라고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정 총재는 이후 단 한번도 선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 개인적 의견이

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임감독제를 반대했다면 커미셔너로서 감독을 만나 이해를 구했어야 옳다. 장 총장이 총재를 대신해 정 총재의 국감 발언 이틀 뒤 선 감독을 만났지만 이는 자존심을 더 짓밟을 뿐이었다. 뒤늦게 복도까지 쫓아 나왔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선 감독은 사퇴하며 정 총재의 발언에 대해 “전임감독제에 대한 총재의 생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진사퇴가 총재의 소신에 부합하리라 믿습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말과 관련해서는 “사퇴결심을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는 말을 남겼다.

전임감독제는 한 때 KBO리그 구성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정 총재는 전임감독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자신이 주도해 선발해야 하는 새 감독, 혹은 새 시스템으로 KBO리그의 명운이 걸려있을지도 모르는 WBSC 프리미어12(2019년)~도쿄올림픽(2020년)을 치러야 한다. 그 동안은 자신의 임기 전 취임한 감독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야구계에서는 정 총재 체제 출범 이후 KBO 수뇌부의 연이은 헛스윙 행보에 꾸준히 우려의 시선이 제기돼 왔다. 정 총재가 꼼꼼이 되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KT, 18일 이강철 신임감독 취임

KT 위즈 구단은 “18일 오전 11시 수원KT위즈파크에서 이강철 신임 감독의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T는 한화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준플레이오프가 한창이던 10월20일 이 감독의 선임을 발표한 바 있다. 계약조건은 3년 총액 12억원이다. 이 감독은 2005년 10월 KIA 타이거즈 2군 투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KIA와 넥센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를 거치며 13년간 핵심 코치로 일했다. 2017시즌에는 두산 2군 감독을 지냈고, 올해는 수석코치를 맡아 팀의 정규시즌 우승에 힘을 보탰다.



KBO 정운찬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전임감독제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 14일 사퇴 의사를 전한 선동열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오른쪽)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선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진사퇴가 총재의 소신에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사퇴 입장을 발표한 뒤 흘기분한 듯 미소를 짓고 있는 선 감독 앞에서 KBO 직원들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1

김태훈 인생을 바꾼 ‘김광현표 슬라이더’

(SK)

캐치볼파트너 호흡 맞추다 전수 받아
PS 8경기 11이닝 중책...MVP급 활약

“(김)광현이 형에게 배운 슬라이더가 신의 한 수였죠.”

SK 와이번스 불펜 필승조 김태훈(28)에게 2018년은 최고의 한 해였다. 팀이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KS) 우승으로 가는 길, 그는 SK의 든든한 정감다리였다.

김태훈은 2017시즌을 마친 뒤 떠난 마무리 캠프에서 자신의 색깔을 찾고 싶었다. 토종 에이스 김광현을 자신의 캐치볼 파트너로 선정(?)했다. 김광현의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전수받기 위해서였다. 김태훈은 2018시즌 불펜의 핵으로 떠올라 61경기 94이닝 평균자책점 3.83 9승의 성적을 거뒀다. 김광현에게서 배운 슬라이더로 재미를 톡톡히 본 덕분이다. 직구(40.1%)에 이은 제 2구종이자 결정구로 슬라이더(33.6%)를 요긴하게 사용했다.

지난날을 회상한 김태훈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슬라이더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까닭이다. 14일 그는 이렇게 돌아봤다.

“2017년 재활 중이던 광현이 형과 함께 마무리캠프에 갔다. 당시 ‘나도 무기 하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슬라이더 하나를 배우기 위해 광현이 형을 캐치볼 파트너로 지목했다. 한 달 동안 계속 캐치볼을 하고,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형에게 조언을 구했다. 나도 원래 슬라이더를 던졌던 투수라 금방 익혀졌다. 던지는 요령만 배웠을 뿐인데, 잘 습득했다. 결국 내게 신의 한 수가 됐다. 그런데도 광현이 형은 생색 한 번 안 낸다(웃음).”

혹독한 체중 감량의 효과도 함께였다. 98kg에서 89kg까지 몸무게를 줄였다. 김태훈은 “몸의 회전이 빨라지고 공에 스피드가 붙으면서 구속이 증가했다”며 “지금 체중은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몸의 회전 속도가 빨라진 덕분에 구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K가 KS 우승을 확정지은 순간 김태훈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시즌이었다. 그동안 꿈만 꾸던 선수 생활이었다. 시즌 내내 행복했다. ‘힘들지 않다’고 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SK 와이번스 김태훈은 2018 포스트시즌을 통해 탄생한 최고의 히트상품이다.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팀이 필요할 때면 가리지 않고 마운드에 올라 호투를 펼쳤다. 선배 김광현과 캐치볼을 하며 습득한 슬라이더는 김태훈의 업그레이드를 이끌어 낸 요소 중 하나다. 스포츠동아 DB

났다”는 것이 깊이 감춰둔 속마음이다.

이미 페넌트레이스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 경기, 이닝을 소화한 그는 PS에서도 8경기 11이닝을 책임졌다. 중책을 맡은 만큼 올 시즌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PS를 치르며 가장 많이 받은 질문도 “힘들지 않느냐”였다. 그 때마다 김태훈은 “정말 안 힘들다”며 특유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어왔다.

덕아웃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그는 힘들어도 좀처럼 내색을 하지 않는 편이다. 김태훈은 “팀이든 개인이든 성적이 안 좋으면 나도 힘들다. 시즌을 치르며 죽도록 안 될 때도 있었다”며 “올 시즌 출장수가 많아 힘들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티를 내선 안 된다. 코치님들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났고, 슬럼프도 거의 없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KS 최우수선수(MVP)에 오르지 못한 것은 내심 아쉽다. “어머니에게 자동차를 드리고 싶었다”는 것이 아들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보다 값진 선물을 했다. 데뷔 9년 만에 ‘투수 김태훈’의 존재를 세상 널리 알렸다. 묵묵히 견뎌온 지난 세월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김태훈과 그의 가족에게 돌아갔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KOLON SPORT